

“왜 부활이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12~20절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람이 한 평생 살아오면서 반드시 한번 이상은 자기에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도 한결같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불멸 사상은 그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이성적인 해답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 하셨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 한 것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Fact 즉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가? 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날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거짓이요, 복음 증거자도 거짓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죄인이 죄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 갔을 때는 그 빚을 청산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들어 가셔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시지 못했다면 인간의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과 피나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쾌락을 끝까지 절제하고 살아본 들 그 후에 아무런 보장과 대가가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후에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이 산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1) 인간의 생사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사의 해석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람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이 있음을 실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되고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현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가 주막집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주막집이 좋던 좋지 않던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닌 주막집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곤란하다. 우리 인생은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치는 예수님이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학식도 건강도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보장이 안된다.' 그러므로 이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천국가서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실패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신다. 왜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3) 세상의 모든 공포에서 자유해집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 주요 신문에 칼럼리스트로서 상담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만 통 이상의 편지를 독자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번은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 만 통 넘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그가 말하기를 공포, 특히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장례식에 비유했습니다. 죽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죽을 준비 잘 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는 성도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맨 나중에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최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믿은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은 맡기지 못하면서 나중에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은 것도 맡기지 못하면서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을 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생적 생을 살고 다음에는 저 나라에서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생명의 단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이 세계에서 다음세계로 넘어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끝나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고 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4)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모두가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니깐 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몇 일 후에 재림한다고 하면 돈 벌려고 밤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면 이세상 것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후해집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아마 그때는 나누어 주어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변화 받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또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정이 고침을 받고 타락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세상 공포 특히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느낍니까?
2.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됩니까?
3.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난 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까?